

‘전쟁의 공모자’가 아닌 ‘평화의 중재자’로

전쟁의 기운이 증진하는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공모자’가 아닌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근래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차 악화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고 대비하는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 동안 대만 남쪽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발라카탄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는 미군 1만 1,000명, 필리핀군 5,000명 등 1만 6,0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격퇴하고 빼앗긴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필리핀 내 군사 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세 곳이 북부 루손섬 일대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미군의 전초 기지로서, 미군은 루손섬과 주변 도서를 중심으로 첨단 레이더망을 구축해 중국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중거리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을 배치해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SM-6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460km이며 토마호크 미사일은 2,500km입니다. 따라서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필리핀에서 대만해협과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는 물론 베이징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언론에서 거론한 ‘2기 트럼프 내각’ 가운데 외교안보팀 후보 중 하나인 엘브리 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움직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상대로 움직여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고갈시킨 뒤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겁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남한과 미국**을 향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처럼 아시아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도발, 미국의 억제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전쟁의 기운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21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그의 동맹들이 한반도 상황을 무력 충돌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국과 위성국가들이 한반도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도모하는 계획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한미 양자 군사 훈련, 일본이나 호주가 참여하

는 확대 훈련 등 지상·공중·해상에서 이뤄지는 여러 종류의 군사 훈련이 이러한 도발 행동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남과 북을 불쌍히 여기셔서 상호불신과 대결을 멈추게 하시고 한반도의 전쟁이 종결되며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악행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 안의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전쟁의 공모자가 아닌 평화의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통일소망선교회는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46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의 위기에서 구출하여 성도로 양육했습니다. 본 선교회는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탈북자들이 속히 구출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말씀 나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요한계시록 5장 9절)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라는 표현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타난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통한 차이입니다. 반면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은 이러한 차이를 넘어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하나임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곧 성도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고전 12:12, 13; 골 3:15)입니다.

이 하나 됨은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공동체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여 온 성도로 구성됩니다.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는 미래에 어린 양 보좌에 모두 함께 둘러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미래 정체성입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미래에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미래에 한 공동체로 있을 새로운 정체성과 세계관으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북한의 지하 성도,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은 국적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서로 죽여서는 안 되며 함께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해 폭력을 경험하고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폭력과 갈등을 바라보기만 하는 전쟁의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의 진영에 갇혀 상대를 증오하기만 해도 전쟁의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증진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관점으로 서로를 헤치는 전쟁이 종식되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탈냉전 시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종과 종교와 국적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종족 간의 ‘증오’라고 지적합니다.<sup>1)</sup> 지금은 소위 신(新)냉전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 갈등이 있고, 향후 더욱 큰 전쟁이 발발하려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탈(脫)냉전을 통하여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군사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 갈등에서 솟아오르곤 했던 전쟁과 갈등이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미·중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어서 북한이 남한을 도발하는 시나리오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증오’가 인류를 급속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볼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가 더욱 많아지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sup>2)</sup>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중재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21.

2) 위의 책, 31.

적 구조(social arrangements)를 새롭게 성서적으로 변화시켜 갈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기운이 확대되는 세상 시스템을 평화의 기운으로 바뀌가며 세상을 변혁시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전쟁의 기운이 퍼져가는 한반도에서 교회는 이렇듯 평화를 구축하는 사회적 행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뿐만 아니라 갈등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